아드보 '삼색 용병술' 빛났다

'스리백→포백→스리백' 토고전 역전

'토털 사커의 정통 후계자' 입증

'삼색 용병술'의 승리였다.

감독이 축구 경기 포메이션에 변화를 가함으로써 어떻게 흐름이 바뀔 수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판이었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토털 사커의 정통 후계자'이며 어떤 사령탑보다 담대한 '작은 장군' 임을 입증할 만한 용병술을 선보였다.

아드보카트호는 13일(이하 한국시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2006독일월드컵축구 본선 조별리그 첫 경기 토고와 결전에서 스리백(3-back)으로 출발했다.

스타트는 불안했다. 스리톱(3-top) 박지성, 조재진, 이천수는 고립됐고 좌우 측면 미드필더 이영표와 송종국은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지 못했다.

중앙의 이을용과 이호도 스리톱과 간격이 벌어지면서 세밀한 킬 패스를 찔러주지 못했다.

김진규, 김영철, 최진철로 짠 스리백은 토고 스트라이커 모하메드 카데르의 빠른 침투에 고전하다 전반 31분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다.

간판 골잡이 에마뉘엘 아데바요르를 최진철이 전담해서 묶었지만 카데르는 상대적으로 마크가 덜해 여러번 돌파를 허용했다. 플레이가 가라앉자 아드보카트 감독은 가차없이 놀라운 전술변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후반에 수비수 김진규를 빼고 안정환을 투입했다.

안정환은 원톱 조재진의 바로 아래에서 섀도 스트라이커 겸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도록 했다.

포메이션은 3-4-3 스리백에서 포백 수비를 채택한 4-2-3-1 대형으로 바뀌었다.

이영표, 송종국이 사이드백이 되면서 좌우 날개 역할을 한 박지성과 이천수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살아났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후반 9분 이천수가 동점골을 뽑아낸 직후 토고의 교체 투입된 오른쪽 윙백 투레 아시미우게게 연속 돌파를 허용하면서 수비진이 다시 흔들리자 김남일 카드를 빼내들었다.

후반 23분 김남일이 이을용 대신 투입되면서 수비라인이 안정을 되찾았고 4분 뒤 곧바로 안정환의 역전 결승골이 터져나왔다.

아드보카트 감독이 승리의 용병술을 완성한 것은 후반 38분이었다.

7분을 남기고 승리를 굳혀야 겠다고 마음먹은 아드보카트 감독은 조재진을 빼고 중앙수비수 요원인 김상식을 투입해 다시 3-4-3으로 환원했다.

스리백이 견고한 지역 방어막을 구축함으로써 토고의 막판 공세를 적절히 차단할 수 있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송종국 "아데바요르 제대로 막은 게 효과적"

최종엔트리 결정을 놓고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1%의 카드' 송종국(수원)이 13일(한국시간) 밤 2006 독일월드컵축구 G조 첫 경기 토고전에서 뛰어난 수비력과 함께 결승골 도움까지 기록하면서 아드보카트호 역전승의 숨은 공신이 됐다.

오른쪽 미드필더와 윙백을 번갈아 소화한 송종국은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지난해 지긋하게 따라다닌 부상과 슬럼프의 '족쇄'에서 완벽하게 벗어났음을 입증했다.

그는 특히 후반 27분 오른쪽 미드필드 진영에서 최전방 안정환을 향해 기막힌 공간 패스를 넣으면서 역전승의 발판을 놨다. 송종국은 경기를 마친 뒤 "절대 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90분을 뛰었다"고 기뻐했다.

또 "전반전이 끝난 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나에게 수비에 치중하라는 전술지시를 내렸고, 반대쪽 이영표에게는 공격적으로 나서라고 말했다"며 "토고의 아데바요르를 제대로 막은 게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전반전 부진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실수가 많았고 선수들이 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상황이 많았다"며 "그 때문에 전반전에 자신감이 좀 떨어졌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송종국은 그러나 "아드보카트 감독이 전반전 끝난 뒤 수비수 김진규를 빼고 안정환을 투입하면서 좀 더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월드컵 새내기 "역전승으로 자신감 얻었다"

이 호

조재진

김진규

13일(한국시간) 밤 독일 프랑크푸르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2006 독일월드컵 G조 조별리그 첫 경기에 나선 '월드컵 새내기' 이호(울산), 조재진(시미즈), 김진규(이와타)는 역전승이 남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아드보카트호의 원톱 공격수로 선발출전한 조재진은 "경기 초반에는 타깃맨으로 나섰지만 주변에 동료 선수들이 없어 볼 연결을 못해 답답했다"며 "후반에 (안)정환이 형이 들어오고 나서 나의 볼을 받아줄 사람이 많아져서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역전해서 이겼다는 게 첫 월드컵을 경험하는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것 같다"고 밝혔다.

안정환(뒤스부르크)과 후반에 교체된 김진규는 오히려 "긴장은 별로 하지 않았고 편안하게 경기했다"고 당당함을 내비쳤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풀타임을 소화한 이호도 "이겼다는 것에 만족한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나아질 것"이라며 "워낙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많아 젊은 선수들을 잘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상대팀 파울 제조기' 박지성 프랑스전에서도 '한 번 더'

아비달·사뇰 스위스전서 경고 한국전 수비 부담 위축 가능성

역시 '빅 리거'였다.

한국인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박지성의 이름값은 괜한 것이 아니었다.

박지성은 13일(한국시간) 프랑크푸르트 발트슈타디온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축구 G조 토고와 1차전에서 예의 그 부지런함과 돌파력을 앞세워 한국의 2-1 역전승에 밑거름이 됐다.

몇 차례 결정적인 슈팅 기회에서는 공이 떠 아쉬웠지만 했지만 박지성은 지혜로운 경기 운영으로 사실상 토고의 장폴 야오비 아발로의 퇴장을 엮어내 팀 승리의 '숨은 주연' 노릇을 해냈다.

이런 그가 있기 때문에 19일 프랑스와 2차전도 기대해 볼 만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테크니컬 스터디그룹의 제임스 셀비는 이날 경기 후 "박지성을 특별히 칭찬하고 싶다. 매우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평했다.

특히 2차전 상대인 프랑스는 스위스와 1차전에서 지네딘 지단을 비롯한 3명이 경고를 받아 한국과 경기에서 움직임이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박지성이 토고를 흔들어 놓은 것 처럼 라이프치히에서도 프랑스 진영을 헤집고 다닌다면 또 한 번 좋은 결과가 나올 법하다.

게다가 스위스와 경기에서 경고를 받은 3명 중 2명이 수비수인 에리크 아비달, 윌리 사뇰이기 때문에 박지성을 막기에는 그만큼 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佛 첫번째 문제점은 지단"

유로스포츠 '고쳐야 할 5가지' 지적

유럽 스포츠전문채널 '유로스포츠'가 프랑스-스위스전이 끝난 뒤 '프랑스가 고쳐야 할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로스포츠 인터넷판은 14일(한국시간) 프랑스의 첫번째 문제점으로 지네딘 지단을 꼽았다.

이 기사를 쓴 이안 홀리먼 기자는 "독일월드컵이 끝난 뒤 은퇴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잘 한 것으로 보인다"며 1차전에서 보여준 그의 플레이에 실망감을 나타낸 뒤 "프랑스는 남은 두 경기에 지단을 투입해야 할지 빼야 할지 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가 지적한 두 번째 문제점은 티에리 앙리였다.

홀리먼 기자는 "앙리의 전 동료였던 드사이가 스위스전에 앞서 '앙리는 지금 70% 정도 컨디션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사실로 입증됐다"면서 "잉글랜드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톱 클래스의 수비수들을 무너뜨리던 그 답지 않았다. 그의 공격에는 자신감이 없었다"고 평했다.

유로스포츠는 이어 '앙리의 짝으로 누구를 세울지'와 '비에라의 부진'을 3-4번 문제로 꼽고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점으로는 '도메네크 감독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편안하고 깨끗한 고급객실!
그 명성 그대로—
▩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하여!
▩ 편리함에서 경제성에서 현명한 선택
▩ 커피숍, 와인 BAR, 세계각국 Wine 전시
▩ 도청광장, 광주역에서 7분 거리

환영 6.15 민족통일 대축전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전화 ☎(062)525-2111~5(구.광주시청맞은편)

좋은 음식 만들기 25년!!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정한 이웃과의 아름다운 만남
신선한 고급재료, 깔끔한 음식맛
호남을 대표하는 특급 한정식 요리코스
25년 명성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각종 대·소연회, 세미나, 돌, 회갑연●

광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임용시험을 구분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해결하려면 우선 다양하고 정교한 합격지리철법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생규모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벼고 우위의 최고 강사진이 선공과목별로 담당해야 합니다. 광내영 교육학의 교수진은 해부, 어름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수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한 높은 합격률로써 입증된 최고 강사진 입니다. 그러므로, 합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역시, 교원임용시험은 교수진이 최고여야 돼"
여름방학 특강 개강 7월 1일(현재 예약접수중)
▶ 교육학/곽내영 선생 ▶ 국어/최병해 교수 ▶ 국어교육론/마운용 교수 ▶ 영어/송옥 교수
▶ 수학/임대성 교수 ▶ 과학교육론/장영민 교수 ▶ 물리/장영민 교수 ▶ 화학/이영철 교수
▶ 생물/강치욱 교수 ▶ 지구과학/박명순 교수 ▶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 일반사회/김형수 교수
▶ 체육내용학/김용호 교수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미술/감성희 교수 ▶ 음악/박성선 교수
▶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 초등교육과정/위재권 선생
전국 최강의 강사진 만을 모셨습니다.
수강문의 :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교원임용 동영상 강의
에듀뷰넷
http://www.eduview.net
쌍방향 학원강의를 원하는 시간을 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수강가능!
전국최고의 유명강사진 총집결
교육학 곽내영 | 유아교육 임미선 | 미술 김성희
국어 최병해 | 영어 송 옥 | 수학 임대성
체육 김용호 | 공통과학 장영민 | 일반사회 김형수
현재 성황리 강의중
문의 : (02)816-1646

2007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여름방학 문제풀이 대 특강
2006년 임용고시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교수진!!
교육학 유길준 교수(직강) 기강 7월 9일(일) 10:00~19:00
국 어 유광재 교수(직강) 기강 7월 8일(토) 10:00~18:00
영 어 이 현 교수(직강) 기강 7월 6일(화) 10:00~17:00
과학교육론 류호창 교수(직강) 기강 7월 8일(토) 13:00~19:00
간호학 신희원 교수(직강) 기강 7월 7일(금) 10:00~17: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직강) 기강 7월 4일(화) 15:00~21: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직강) 기강 7월 8일(토) 13:00~19:00
선생님을 향한 당신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현대교원임용고시학원
www.hgosi.net
전남여고 앞 222-6790

경찰직 10월1일 시험대비
이론반 개강 7월 3일
이론반 수강시 문제풀이 무료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뒤 222-4560

'Boiler Control System 개발 20년 Know-how'
Heat Well 순간가열식 전기보일러
4kw~98kw까지 10평~380평형까지
"에너지혁명" 50%절감
Heat Well로 연료비걱정 NO!!
난방시 연료비교
구 분	Heat Well	도시가스	전기판넬	등 유
소비자가격	64.9원/㎾/h	508원/㎥	64.9원/㎾/h	920원/L
연료소비량	80%/h	1.1㎥/h	1㎾/h	1.4L/h
비 율	100%	108%	137%	248%
20평 난방비	155,760원/월	167,640원/월	214,170원/월	386,400원/월
사용기준	1일 10시간	1일 10시간	1일 10시간	1일 10시간
※설치환경(실내 장소, 단열상태 등)에 따른 부과요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www.sysworks.co.kr
삼우상사
062)228-4242, 232-6262, 524-6262

hanbitgosi.co.kr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대비 =
7·9급 공무원 대개강
개강:6월 1일 전문학원!! 전문강사진의 명쾌한 강의만이 당신의 합격을 앞당깁니다.
한빛공무원학원
전남대 후문앞 (서울고시학원 바로 앞) ☎234-0234